

상징과모래놀이치료, 제14권 제1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23, 4, Vol. 14, No. 1, 137-167.
doi <https://doi.org/10.12964/jsst.23004>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 금강석으로 재탄생된 돌의 자기(self)의 모습 -

Stone: The Stone Abandoned by the Builder Becomes the Cornerstone
- The Self-appearance of the Stone Reborn as a Diamond -

국 선 희
Sunhee Gug

The English full text is right after the Korean one.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 금강석으로 재탄생된 돌의 자기(self)의 모습 -

Stone: The Stone Abandoned by the Builder Becomes the Cornerstone
- The Self-appearance of the Stone Reborn as a Diamond -

국 선 희*

Sunhee Gug

<Abstract>

When intact, rocks can represent harmony and unity with oneself, but if shattered, they can symbolize death, extinction, and psychological weakness. Yet, the pain that a rock endures to be transformed holds numerous possibilities for change. Through perseverance over time, being eroded by wind and water, and tempered by high pressure and heat, the transformed rock becomes a pearl or diamond that embodies a sublime and exquisite beauty. This transformation can represent the ultimate integration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The existence of a rock that just rolls around on the street can symbolize trauma in our lives. Similarly, the stones shown in a client's box can represent more profound meanings, such as overcoming inferiority and finding confidence, or the beauty and struggles of motherhood. These symbols can serve as a reminder that the process of overcoming inner wounds can be painful and difficult. However, by facing our traumas and persevering through the journey, we can discover our true selves, transforming our pain into a source of growth and strength.

Key words : rocks, trauma, pain, transformation, growth

* 한국카운셀링센터 전문상담사 (gsh707@naver.com)



Copyright ©2023,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돌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류는 돌을 통해 발전해왔다. 부싯돌로 불을 만들기 도 하고, 돌을 예리하게 깎아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으며 더 나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을 돌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고 집을 짓기도 하고 종교의식을 위한 석제품과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었다. 그만큼 돌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다. 돌의 변화는 결국 인류의 발전을 나타내며 갖가지 형태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돌은 모래보다는 크고 바위보다는 작은 것으로 암석, 광물을 통틀어 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김승찬, n.d).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곳도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돌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돌은 보석으로 금강석(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자수정 등이 있다. 이처럼 돌은 인류의 일부이며 그 사용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여 그만큼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

돌은 안정, 영속성, 신뢰성, 불사, 불멸성, 영원성, 응집력을 나타낸다(Cooper, 1987/1994). 흔히 돌의 단단함과 불변성으로 인해 무생물이라고 인식되었지만 돌은 생명이 없는 물질 속에 존재하는 강력한 물화론적 힘의 상징이기도 하다(Tressider, 1998/2007).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등 뒤로 대지의 뼈인 돌을 던져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다(Campbell, 1996). 기존의 인류가 없어지고 새로운 탄생이 된 것이다. 돌에는 생명을 주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반대로 인간이 성스러운 돌로 변할 수도 있다. 한국의 설화에서는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돌이 되어버리는 망부석이 나온다. 즉 아내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다림과 사랑을 돌로 나타내었다. 또한 하늘에서 떨어진 돌인 운석은 하늘과 지구 사이의 상징적 연결로 과거부터 성스러운 것으로 숭배됐다(Matthews, 1993). 종교적 측면에서 돌은 안정의 상징으로 사원이나 제단이 만들어지는 것의 기초로 사용되었으며(Cooper, 1987/1994), 신성한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Tressider, 1998/2007).

그러나 쓸모없이 하찮은 존재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로 표현하기도 하며, 메두사의 얼굴을 보고 공포로 돌이 되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머리가 돌처럼 굳어있다는 의미로 ‘돌머리’라는 부정적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우물, 샘, 보석의 동굴을 뚫고 있는 돌은 생명의 물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물이나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고난이나 넘어야 할 장애물 등이 있다는 것이다(Cooper, 1987/1994). 그 고난과 장애물을 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금과 보석은 결국 무의식 속에 있는 영적 지혜를 의미한다(Fontana, 1993/2002).

성경에서는 예수를 머릿돌로 비유하며 표현하였다. 성경에서 예수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비난받으며 십자가의 형틀을 메고 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 모습에

대해 성경에서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대한성서공회, 1961)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예수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존재로서 머릿돌로 비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머릿돌의 상징적 의미는 아마도 불품없고 평범하다 못해 눈에 띄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삶에서 고유하고 독특하고 귀중한 삶에 대한 인식으로의 변화일 것이다.

이런 예들은 돌의 일부인 보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는 은은하고 신비스러운 빛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보석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한 알의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찮은 이물질이라는 모래알을 품은 조개가 그 모래알로 인한 아픔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한다. 그 아픔을 감싸려고 애써 분비한 체액이 쌓여서 이루어진 고통의 덩어리가 바로 진주인 것이다. 그토록 하찮은 것 그리고 모두 원하지 않는 고통과 눈물의 결정체가 진주이다. 따라서 진주는 바다의 조개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여성원리와 숨겨진 지식 또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만들어진 과정과 관련되어 인내심과 슬픔 혹은 기쁨의 눈물을 상징한다(Cooper, 1987/1994; Fontana, 1993/2002).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는 다르지만 보석으로서 금강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유사하다. 금강석도 오랜 세월 동안 석류석이라는 광물이 깊은 땅 속에서 엄청난 온도와 압력을 견딘 결과로 만들어진다. 금강석은 보석의 왕이라고 불리며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상징으로도 쓰이기도 한다(이창진, 2010). 또한 빛, 생명, 태양, 성실성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Cooper, 1987/1994).

원석을 깎아내어 보석을 만드는 것은 결국 불순물이 깎여 나간 뒤 영혼이 드러나는 것을 상징한다(Fontana, 1993/2002). 하찮은 돌이었지만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낸 돌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재탄생해 모두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건물을 지지하는 주춧돌로서 큰 기둥이 세워지는 건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렇듯 돌은 그 안에 많은 변환의 가능성과 신비함을 가지고 있다. 고난과 아픔이라는 여정이 그 가능성들을 일깨우고 변환의 산물로서 새로운 가치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 정신의 발달 측면도 돌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사람들은 대개 살면서 자기(self)를 만나길 소망하며 이 자기(self)를 만나기 위해 심오한 내적 체험을하기를 원하며, 이 체험을 통해 개성화라는 자신의 내면의 정체성을 찾아가길 소망한다. 개인의 정체성이 선형적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각자의 별, 즉 우주적 차원과 운명을 나타내는 천상의 다른 한쪽을 갖고 있다는 관념과 일치할 것이다(Edinger, 1972/2016).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그 소리를 알아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self)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 각종 콤플렉스, 고통, 슬픔을 직면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거친 후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돌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체험, 인간이 스스로를 영원불멸하고 불변하다고 믿을 때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체험을 상징한다. 즉 고통을 겪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진 돌은 영원불변의 자기를 상징한다. 과거 연금술사들은 돌이나 혼한 금속을 금으로 변환하고자 하였다. 결국 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이를 위해 원소의 변환을 촉진시키는 ‘현자의 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금을 얻고자 하였던 것은 불변하는 영적 자아 즉, 자기를 만나고자 한 것을 의미하며(Tressider, 1998/2007), 변환과 지혜의 상징으로 ‘현자의 돌’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술사 ‘모리에누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Jung, 1964/2009).

“그대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돌의 사랑과 존귀함이 그대 속에서 자랄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진실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며 개성화로 가는 여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성화 과정에 비유되는 돌의 상징성들을 진주와 금강석에 비유되는 자기(self)라는 특성과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인간 내면의 상처와 어떻게 연결되고 극복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징이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개성화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진주와 금강석

1. 진주의 찬가

인간은 본래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부모, 가족, 또는 사회가 각인시킨 존재로서 살아가며 타인과 사회가 바람직하고 이상적으로 여기는 삶 또는 존재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비관한다. 근원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다. 영혼이 어떻게 깨어나는지와 하늘의 근원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야기하는 진주의 찬가는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비유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인간은 분석심리학적으로 셀프 그리고 기독교 종교적으로는 신의 자녀이며 힌두교에서도 인간은 신의 창조물 즉 신의 자녀이다. 이런 인간의 원형적인 모습들이 영혼이 어떻게 깨어나고 하늘의 근원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 이야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화의 과정에서 자아가 발달하면서 자아의식성은 자신의 근원인 자기(self)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 자기(self)와

의 연결의 단절은 소외감, 권태, 열등감, 무력감, 불안, 갈등 등이다(Edinger, 1972/2016).

아래 인용문은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잊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내가 어린아이였고 아버지의 왕국에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풍요와 화려함 속에서 기뻐할 때 나의 부모님이 나의 고향인 동쪽에서 여행에 필요한 것과 함께 나를 내보내셨다. ... 그들은 나를 위해 그들의 사랑으로 만들어 준 영광의 예복과 내 몸에 맞도록 만들어준 보라색 망토를 벗겼다. 그리고 나와 약속했고 내가 약속을 잊지 않도록 내 심장에 그것을 기록했다. “내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다 한가운데에 헝헝거리는 뱀이 감싸고 있는 진주를 가져오거든 너의 영광의 예복과 망토를 그 위에 펼치고 너의 남동생과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되어라.”

나는 두 명의 충성스러운 수행원을 데리고 동쪽을 떠나 아래로 내려갔는데 길이 위험하고 거칠었으며 여행을 하기에는 내가 어렸기 때문이었다. ... 나는 이집트로 갔고 나의 수행원들은 나를 떠났다. 나는 곧장 뱀에게로 가서 그가 잠들면 진주를 훔치려고 그와 가까이 있는 여관에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 여관에서 머무는 사람에게 나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처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진주를 가져가서 뱀이 대적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내가 그들과 같은 나라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들은 내 환심을 사서 교활하게 내게 술을 먹이고 고기 맛을 알게 했다. 나는 왕의 아들임을 잊고 그들의 왕을 섬겼다. 나는 나의 부모가 나를 보낸 이유인 진주를 잊었다. 그들이 먹여주는 무거움으로 인해 나는 깊은 잠 속에 가라앉았다. 이 모든 일이 내게 닥쳤고 부모님이 알고 슬퍼했다. ... 그리고 부모님은 내게 편지를 보냈고 두 사람 각자 서명이 있었다. “왕 중의 왕 아버지로부터, 동쪽의 여신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상속자인 아우로부터 이집트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 편지를 읽어라, 네가 왕의 아들임을 기억하라. 내 영광의 망토를 기억하라. 너는 그것들을 입어 너 자신을 장식하고 너의 아우와 함께 왕국의 상속자가 되어라.” 전령과 같은 편지였다. ... 그것은 날개 달린 모든 짐승의 왕인 독수리의 형태로 일어났고 내 옆에 와서 빛을 비출 때까지 날았으며, 온전히 말씀이 되었다. 그것의 목소리와 소리에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고 그것을 집어 입 맞추고 봉인을 뜯어 읽었다. 나의 심장에 쓰여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편지에도 쓰여 있었다. 나는 내

가 왕들의 아들이며 나의 자유로운 영혼이 이집트에 내려졌다는 것을 기억해 내었다. 나는 내가 진주를 가지러 이집트에 보내졌다는 것을 기억해 내고서 끔찍하고 험한 험한 험한 뱀에게 마술을 걸기 시작했다. 뱀에게 나의 아버지의 이름, 상속자의 이름 그리고 동쪽의 여왕 어머니의 이름을 들려주어 뱀을 잠들게 했다. 나는 진주를 잡아 아버지에게 돌려보냈다. 더럽고 순결하지 못한 그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그들의 손에 쥐여 준 다음 우리의 고향, 동쪽의 빛에 가기 위해 나의 길을 갔다.

가는 길에 나를 깨운 편지를 내 앞에서 발견했으며, 그것은 목소리로 나를 깨웠던 것처럼 내 앞에 빛을 비추어 나를 안내했고, 목소리로 내 두려움을 잠재워 주었으며, 사랑으로 나를 이끌었다. ... (그런 다음 그가 고향에 도착하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영광의 예복과 망토를 보냈다.) 나는 그것을 펼쳐서 입을 다음 그것의 색으로 나 자신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전체 몸에 걸쳤다. 거기서 옷을 입고 나는 승배의 문으로 올라갔다. 나는 내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나에게 그것을 보낸 아버지, 그가 약속했던 것을 그도 수행한 것처럼 내가 따랐던 명령을 내린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했다. 그는 나를 기쁘게 받으셨고 나는 그의 왕국에 그와 함께 있었다... (pp. 159-161) (Edinger, 1972/2016).

이 이야기에서 자아는 왕, 하늘 가족의 자녀로 시작한다. 이것은 자기 또는 원형적 정신과의 동일시라는 근원적 상태와 일치한다.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근원적 낙원으로부터 내보내졌다. 이것은 무의식적 모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의식적 발달과정을 말한다. 외국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잊고 잠들어 버린다. 이 상황은 자아-자기 소외와 의미없음의 상태에 상응한다. 각자 개인의 삶의 사명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의 부모에게서 온 편지가 잠든 사람을 깨우고 그의 사명을 일깨운다. 그의 삶에 의미가 회복되며 자아와 자아의 초개인적 근원 사이의 관계가 재형성 되는 것이다. 인간 안에도 이 이야기처럼 망각하고 있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사명의 소리가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주의 찬가에서는 사명의 소리가 편지라는 매체를 통해 전해진 것이며 인간의 무의식과 맞닿아 있는 꿈이나 모래놀이치료 등과 같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통해 깨달아야 할 그리고 완수하고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전달받고 있을 것이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주의 찬가에서 “내 심장에 쓰여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편지가 있다.”라고 말하듯이 말이다. 나의 자기(self)를 만나고 그 자기(self)가 연결된 나의 원형적 신의 창조물인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주는 암흑세계에 떨어진 인간의 영혼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구세주’ 그 자

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성 에프렐은 세례의 신비를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진주에 비유했다. “잠수부 역시 바다에서 진주를 건져 올린다. 바다에 뛰어들어(세례를 받아), 바닷속에 감춰진 순수를, 신의 왕관을 장식하는 진주를 건져내어라.” 진주를 찾는 사람이 발가벗고 대양 속에 뛰어들어 바다 괴물 사이에서 길을 헤쳐 나가야 하듯이 고행자도 “이 세상 사람들” 사이를 발가벗고 들어간다. 그노시스(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는 “숨겨져” 있으며, 도달하기 힘들다. 구원의 길에는 장애물이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진주는 이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다(Edinger, 1972/2016). 작은 모래의 아픔이 진주의 영롱한 빛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삶에서의 개성화로 가기 위한 이 여정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2. 수용성, 여성성의 상징으로서의 진주

진주는 여러 가지 보석이 있지만, 진주가 생겨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여성성의 의미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 진주는 고통을 인내한 결과로 생겨나기 때문에 더욱 값진 보석이다. 진주가 되려면 자신의 부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물질들을 오랜 세월 동안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삶에 의미를 주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름답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성은 단순히 여성적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성, 관계성을 의미한다(이부영, 2001). 그렇다면 개성화 과정 즉 자기(Self)와의 연결과정에서 수용성, 관계성은 외부 또는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수용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용성과 관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여성성이다.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망각했거나 무의식 상태에서 만든 상처와 외상이 있다면, 그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은 두렵고 하기 싫은 퇴행적 욕구에 직면 당할 수 있다. 이러한 퇴행적 욕구에 대한 예로 성서의 요나를 들 수 있다. 그는 신으로 상징되는 내면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두렵고 게으르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퇴행적 모성을 상징하는 배의 밑창에 가서 잠들었으나 즉 여전히 무의식 상태에 있었으나 결국 내면의 부르심에 승복하고 그 비친 불빛을 향해 나아오는 요나를 본다. 즉 수용성, 관계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결핍과 트라우마에 대한 원망, 분노가 아니라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여성에게는 남성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여성만의 고유한 능력이 있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과 양육이라는 재탄생의 과정에 긴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새 생명과 사랑의 체험은 남성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여성들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다. 반드시 아이를 낳아 길러야만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본래 갖추고 태어난 자연스러운 여성만의 권리이고 본능이다. 조개 속에 싸여있는 진

주와 태아 사이의 유사성은 중국학자들에 의해서 강조된 바 있다. “여자가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듯이, 조개를 배고 있다. 그 때문에 방 조개는 ‘진주의 배’라고 불린다.” 이처럼 진주가 작은 모래알을 품고 인고의 시간을 견딘 후에 출산한 진주는 새로운 생명이며 신비일 것이다. 그래서 그 진주를 낳 태어난 아프로디테가 물 밖으로 나올 때 떨어진 물방울로도 (Mircea, 1952/1998) 표현한다.

그 때문에 진주는 오래전부터 돌봄의 역할로 의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출혈과 황달에 대한 처방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귀신 씌인 증세나 광증을 치료하기도 했다. 진주는 눈병을 치료해 주고 중독에 대해서 효능이 있으며, 결핵을 치료해 주고 힘과 건강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독, 악마, 노쇠. 질병을 내쫓는다.”라고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진주는 간질, 광증,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물에서 파생하는 힘과 생식능력의 상징을 지니고 있던 진주가 후에 강장제, 최음제가 되었으며 광증과 우울증은 모두 달의 영향에 의한 질병으로 여성, 물, 에로티시즘의 모든 상징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한다(Mircea, 1952/1998).

진주와 비슷한 모성적인 특징을 가지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전을 들 수가 있다. 어머니 없이 봉사의 천덕꾸러기로 태어나 아버지의 눈을 위해 뱃사람들에게 팔린 심청은 사실 하늘의 서왕모의 딸이다. 그녀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나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인당수에 빠졌을 때 왕비가 된다. 즉 진정한 자신의 본질적 정체성을 찾았음을 의미한다. 심청은 진주가 아닌 연꽃으로 부활하지만, 연꽃 역시 진주와 유사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연꽃은 온도가 낮은 진흙탕 물에서도 꽃봉오리를 피우며, 꽃을 피우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연꽃은 다른 식물들과 달리 스스로 열을 낸다. 그 결과로 진흙이 전혀 묻지 않고 고결하고 순결한 꽃을 피워낸다. 그 상징성이 진주와 유사하다.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심청은 예전의 천덕꾸러기가 아닌 고귀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봉사의 딸에서 한 나라 임금의 아내로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전국의 장님들을 궁으로 초청을 해서 먹이고 돌보며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했던 장님인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 이후 아버지가 눈을 뜨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맞이하게 된다. 진주와 심청이의 안에 있는 여성성이 자신의 하찮고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희생과 인내와 고통을 견디게 하고, 그 힘든 여정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며, 그 변화된 존재는 더 이상의 예전의 그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닌 신비하고 영롱한 빛을 발휘하여 생명을 살리며 또 다른 자신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3. 땅속의 진주: 열과 압력의 결과로서의 금강석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diamond)는 ‘부스러지지 않는’을 뜻하는 그리스어 adámas에서 유래했다. 금강석(金剛石)은 ‘아주 단단한 광물’을 뜻하며 중국어로 ‘鑽石(찬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뚫는 광물’이라는 뜻이 있다. 금강석은 인간에게 알려진 물질 중 가장 단단한 것으로 99.95% 이상의 탄소의 결정체이며 보석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결정체이다. 용융 온도는 무려 3,700도에 이르고 광물 중에 가장 단단하므로 금강석끼리 부딪치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긁히거나 마모되는 일은 없다. 천연의 광물 중에서는 광택이 매우 아름다우며, 광선의 굴절률이 높아서 반짝거린다(이창진, 2010). 이러한 금강석의 특성으로 영구성, 부패시킬 수 없는 성질을 상징하기도 하며 태양과 빛을 의미하기도 한다(Fontana, 1993/2002).

금강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장구한 시간 동안 땅속에서 열과 압력을 견딘 결과이다. 진주조개의 고통에 비유될 수 있는 과정들이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주조개가 여성성의 상징인 것처럼 땅속도 무의식적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압력과 열을 받아들인 결과는 금강석으로 결정화되는데 금강석도 진주와 마찬가지로 자기(Self)의 상징이기도 하다. 금강석이 빛나는 보석이 되기까지 꺾이는 과정이 존재한다.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찬란한 빛을 얻기 위해 고통과 고난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어둠 속에서도 가장 풍부한 빛을 퍼트리는 금강석은 어두운 땅속에서 그 높은 열과 압력을 견디었기에 더욱 빛나고 그 가치가 소중하다. 따라서 그 의미도 다양하고 탄생석으로도 쓰이고 있기도 한다. 4월의 탄생석으로 알려진 금강석은 ‘불멸’, ‘사랑’을 의미하며, 천연석 중 빛의 굴절률이 가장 높아 아름다운 광채를 발휘하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눈부신 광채로 인해 옛날부터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진 별 조각’, ‘신이 흘린 눈물방울’이라 불리기도 하였다(이창진, 2010).

르네상스 시대까지 금강석은 불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어떤 도구로도 깎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에 금강석이 여성의 수호석이 된 것은 사막에서 갈증에 허덕이던 어머니가 금강석을 넣은 물을 마시자 다시 젖이 나오기 시작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도 좁쌀만큼 작은 금강석이라도 원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금강석은 가공된 상태보다 원석인 상태가 훨씬 더 많은 기를 방출하므로 가공 반지가 아닌 원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치료 효과는 물론 아름다운 피부와 싱싱한 젊음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III. 모래놀이치료 사례에서의 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원하지만, 현실과의 대면은 기대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추락, 탈출, 치유되지 않은 상처, 영원한 고문 같은 이미지로 자아-자기 축의 손상을 야기하기도 한다(Edinger, 1972/2016). 따라서 아동기에 부모, 그중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 146 -

음과 함께 모래놀이치료를 시작하였다.

Fig. 1.은 내담자가 모래놀이 치료를 하며 15회기 때 만든 모래 장면이다. 모래 장면에서 내담자는 바다가 육지로 들어와 있는 만으로 호수 같은 바다를 표현했다. 햇살이 비치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바다인데 거기에 자신의 아이가 편안하게 누워있다고 한다. 지금은 공황장애로 자신이 매우 힘들어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잘 커 주고 있는 아이가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모래 장면에서 아이의 대각선상에는 진주를 품고 있는 커다란 조개를 가져다 놓으며 아름다워서 가져다 놓았다고 하였다. 이후 진주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의 시간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담자는 이야기하며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놓은 이 진주가 자신과 너무도 닮은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저도 이 진주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요?”라며 진주를 보며 위로와 힘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내담자는 아이가 있어서 더 용기가 나고,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놓은 조개가 자신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 신기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내담자는 어렵고 힘든 임신의 과정을 잘 견디고 건강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염원으로 진주를 품은 조개를 가져다 놓았고 조개의 대각선 자리에 자신의 아이를 놓음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내담자가 자신의 불안을 견디고 노력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난 사람들의 특징들은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하거나 외부세계는 다 위험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불안에 시달린다. 또한 과잉보호는 끊임없이 침범당함을 의미한다. 이 내담자는 어머니의 침범과 관계 속의 불안 그리고 단조롭고 재미없는, 때로는 힘들기도 한 성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본래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아 독립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개 자체도 여성성을 상징하지만, 진주는 수용성, 관계성의 상징이므로 내담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여성성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상징한다. 이러한 과정을 내담자는 현재 임신이라는 과정과 함께 경험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성의 원리와 유사하며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은 새로운 존재와 관계를 맺고 독립된 성인, 즉 어머니로서의 수용적인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40대 후반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이다. 내담자는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내담자에게 집은 낯선 곳이었다고 보고하며 동생들도 정이 가지 않아 혼자 외톨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눈치를 많이 보고 부모님이 공부를 잘해야 좋아해 준다는 생각

에 칭찬을 많이 받고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매번 결과들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현재 제 일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그림 2] 40대 후반 여성의 10회기 모래 장면

Fig. 2.는 내담자가 10회기 때 만든 것으로 가운데에 돌을 가져다 놓으면서 예전의 이런 모양의 돌들은 자신에게는 부잣집에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꿈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내담자는 동글동글한 돌도 있지만, 이 울퉁불퉁한 돌들이 왠지 더 자유롭고 힘이 있게 느껴져서 더 마음에 들어서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이 돌을 여기다 가져다 놓으니 예전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내 것이 된 것 같고, 내 안의 채워지는 대상이 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다. 못생긴 돌이지만 덕분에 주변이 밝게 빛나는 것 같아 힘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내담자가 언급한 돌은 금강석에 비유될 수 있다. 형형색색의 돌들을 금강석 결정체 모양인 만다라 형태로 놓았다. 흥미로운 것은 가운데 큰 바위가 있다. 이것은 아직 거친 모습들을 하고 있어 진정한 자기(self)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찾는 모습으로 보인다. 내적, 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이를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금강석이 될 필요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과거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소외감으로 인하여 부모와 사회에 기대에 자신을 맞춰오며 진정한 자신을 보살피지 못하였다. 인간은 타인의 기대에 평생 자신을 맞추어 줄 수 없다. 외적 잣대에 자신을 맞추는 일은 개인의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진정한 자신을 알지 못해 소외감을 경험한다. 따라서 외부가 아닌 내적 자신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 모래 장면은 열등감과 소외감에 시달리던 이 내담자가 자기(Self)와의 연결을 통해 자신감, 공감함, 홀로임을 건디는 능

력을 계발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통찰할 필요가 있음을 상징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돌의 상징성과 돌의 종류인 보석 중 진주와 금강석의 상징에 대해 알아보고 모래놀이치료 사례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과 힘들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내면 안에서 어떻게 배열하며, 자신의 자기(self)를 찾아가는지를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알아보았다.

돌은 그 자체로는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돌에 가해지는 높은 열과 압력,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변화된 모습은 순수한 결정체이자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와 금강석의 모습이었으며,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닌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재탄생된 것이다.

모래놀이치료 사례에서 첫 번째 내담자는 아직도 가야 할 힘든 여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모래 장면에서 조개 속 진주의 모습과 그 대극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표현하였다. 이는 지금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자신에게 하찮은 것이 아닌 소중하고 귀한 진주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였으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내담자 또한 그동안 자신을 모난 돌처럼 불품 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람들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했지만 모난 돌 그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내면의 평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은 그동안 사회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함으로써 자아에 의해 완전히 소외된 그 사람의 진정한 개성, 자기를 찾아주는 일, 즉 자기실현뿐이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무의식의 메시지들을 외면하고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픔, 고통, 힘들음을 고스란히 감당하며 지내게 된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 내 안의 자기 모습을 가리고, 오로지 열등감의 그림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된 모습인지 모르는 가면을 쓰고 삶의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된다. 어쩌면 이 모습 자체가 우리의 트라우마이자 삶의 고통이다. 우리 안의 무의식 속의 메시지인 “네가 왕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기억해 내어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자기 인식의 과정은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기에 꼭 거쳐야 할 소중한 과정이다.

자기 인식의 과정인 자기실현이나 개성화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는 힘을 주고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이부영, 2002)고 하였다. 이런 개성화 과정은 내적 중심인 자기(Self)와의 의식적인 대화로서, 개인이 상처를 입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진정한 자기(Self)를 찾아가는 개성화 과정에서 무의

식과 대면하게 될 때 개인은 엄청난 고통과 힘겨움을 느끼게 된다(장미경, 2017). 또한 개성화의 경험은 정신적 갈등을 통해 대극의 통합을 이루거나 억압된 감정이나 의식을 표현하고 수용할 때 가능하며 상징을 표현하므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이경희, 2005). 그러므로 개성화는 전 생애를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서, 개인마다 고유하고 특별한 자기 체험을 통해 인격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Jung, 1999/2004). 이 과정에서 찾은 의미는 건강한 개인으로서 개성화로 가는 뜻깊은 치유과정의 여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찬 (n.d). 돌(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6109>
- 대한성서공회 (1961). 개역개정 성경전서. 아가페출판사. 사도행전 4:11.
- 이경희 (2005). 중년여성의 자아분화와 자아정체성과의 발달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부영 (2001). 아니마와 아니무스: 남성 속의 여성, 여성 속의 남성. 한길사.
-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하나의 경지, 하나가 되는 길. 한길사.
- 이창진 (2010). 기본 광물·암석 용어집: 광물 62종과 암석 62종에 대한 한국어, 조선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용어 비교. 한국학술정보.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학지사.
- Campbell, M. (1996). *The raven's retur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trauma on individuals and culture*. Chiron Publications, 1993,(708) 258-7551.
- Cooper, J. C. (1994).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 Hudson.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글방. (원서출판 1987)
- Edinger, E. (2016). *Ego and archetype: individuation and the religious function of the psyche*. Penguin Books. (장미경, 역). 자아발달과 원형: 정신 발달과정과 삶의 의미 창조. 학지사. (원서출판 1972)
- Fontana, D. (2002). *(The)Secret language of symbols: A visual key to symbols and their me*. Chronicle Books. (최승자, 역).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원서출판 1993)
- Jung, C. G. (2004). *Personality and Transition*. Patmos Verlag.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인격과 전이. 솔출판사. (원서출판 1999)
- Jung, C. G. (2009). *Man and his symbols*.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원서출판 1964)
- Matthews, B. (Ed). (1993). *The Herder Dictionary of Symbols: Symbols from Art, Archaeology, Mythology, Literature, and Religion Dictionary of symbolism*. Chiron Publications.
- Mircea E. (1998). *Images and Symbols: Poetic on the System of Sorcery and Religious Symbols*.

국선희 /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 금강석으로 재탄생된 돌의 자기(self)의 모습 -

Editions Gallimard.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글방. (원서출판 1952)

Neumann, E. (1973). *The Child*. Shambhala.

Tressider, J. (2007). *Symbols and their meanings*. The House of Books. (김병화, 역). 상징 이야기: 진귀한 사진·그림과 함께 보는 상징의 재발견. 도솔. (원서출판 1998)

투고일 : 2023. 01. 31

수정일 : 2023. 03. 17

게재확정일 : 2023. 04. 22

Stone: The Stone Abandoned by the Builder Becomes the Cornerstone - The Self-appearance of the Stone Reborn as a Diamond -

Sunhee Gug^{*}

<Abstract>

When intact, rocks can represent harmony and unity with oneself, but if shattered, they can symbolize death, extinction, and psychological weakness. Yet, the pain that a rock endures to be transformed holds numerous possibilities for change. Through perseverance over time, being eroded by wind and water, and tempered by high pressure and heat, the transformed rock becomes a pearl or diamond that embodies a sublime and exquisite beauty. This transformation can represent the ultimate integration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The existence of a rock that just rolls around on the street can symbolize trauma in our lives. Similarly, the stones shown in a client's box can represent more profound meanings, such as overcoming inferiority and finding confidence, or the beauty and struggles of motherhood. These symbols can serve as a reminder that the process of overcoming inner wounds can be painful and difficult. However, by facing our traumas and persevering through the journey, we can discover our true selves, transforming our pain into a source of growth and strength.

Key words : rocks, trauma, pain, transformation, growth

* Korea Counseling Center: Professional Counselor (gsh707@naver.com)



Copyright ©2023,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 Introduction

Stones exist naturally, and mankind has developed through stones. Mankind made fire with flints, sharpened stones to hunt and gather food, and furthermore, start farming. People used stones to make tools, build houses, stone products for religious ceremonies, and weapons for war. As such, stones could be easily seen everywhere. Changes in stones eventually represent the development of mankind and stones have been used in various forms. Stones are larger than sand and smaller than rocks, and rocks and minerals are sometimes collectively called rocks (Kim, n.d). The place where we stand on is also made of stones, and the stars floating in the sky are also made of stones. In addition, stones include gems, such as diamond, ruby, emerald, and amethyst. As such, stones are a part of mankind, and make new things depending on the use. As such, stones have various symbols.

Stones represent stability, permanence, reliability, immortality, indestructibility, eternity, and cohesion (Cooper, 1987/1994). Stones are often recognized as inanimate objects due to their hardness and immutability, but stones are also a symbol of the powerful animistic force that exists in inanimate matter (Tressider, 1998/2007). In Greek mythology, Deucalion and Pyrrha, who survived the great flood, threw stones, which were the bones of the earth, behind them so that new mankind was created (Campbell, 1996). The existing human beings disappeared, and a new birth took place. This symbolizes that life-giving power is latent in stones. Conversely, humans can be turned into holy stones. Among Korean folktales, there is mang-bu-seog in which a woman waiting for her husband turns into a stone. That is, the wife's unchanging, eternal waiting and love was represented by a stone. In addition, meteorites, which are stones that fell from the sky, have been worshiped as being sacred from the past as a symbolic connection between the sky and the earth (Matthews, 1993). In the religious aspect, stones were symbols of stability, have been used as the foundations for building temples or altars (Cooper, 1987/1994), and have been also used to mark sacred places (Tressider, 1998/2007).

However, useless trifling beings are expressed as stones rolling around roadsides and stones also mean the state where one can do nothing as if he/she has become a stone after seeing the face of Medusa. In addition, the word stone is also used as a negative word, such as 'stone head', which means the brain of a foolish person hardened like a stone. In addition, the stones covering wells, springs, and caves of jewels hinder access to the water of life, and this means that there are hardships that must be gone through or obstacles that must be overcome in order to find water or jewels (Cooper, 1987/1994). The gold and jewels that can be obtained after overcoming the hardships and obstacles eventually mean the spiritual wisdom in the unconscious (Fontana, 1993/2002).

In the Bible, Jesus is compared to a cornerstone when he is expressed. In the Bible, Jesus appears in the form of a sinner who is carrying the rack of the cross while being hit by stones thrown and being blamed. Regarding that appearance, the Bible says, “This Jesus is the stone abandoned by you builders, and has become the cornerstone of the house.” (Korean Bible Society, 1961) to compare Jesus to a stone as a precious being that rescues all mankind. Here, the symbolic meaning of the cornerstone should be probably a change in perception from a life, which is so unattractive and common that it is inconspicuous and has no presence, into a unique, distinctive, and precious life.

Examples as such can also be seen through gems that are parts of stones. Among them, the pearl we know is one of the gems that have been loved by many people fo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of its subtle and mysterious light. However, in order for that one pearl to be made, a clam that bears a grain of sand, which is said to be a trivial foreign substance, must endure the pain caused by that grain of sand for a long time. Pearls are lumps of pain made of body fluids secreted to cover up the pain. A pearl is the crystal of such a trivial thing, and the pain and tears wanted by nobody. Therefore, pearls symbolize the feminine principle and hidden knowledge or wisdom because they are created from shells in the sea, and also symbolize patience, sadness, or tears of joy in relation to the process through which pearls are made (Cooper, 1987/1994; Fontana, 1993/2002). Although different from the process through which pearls are made, the process through which diamonds are made as gems is similar. Diamond is also made as a result of endurance of tremendous temperature and pressure by a mineral called garnet in the deep underground for a long time. Diamond is called the king of gems and is also used as a symbol of eternal love along with its expensive and luxurious image (Lee, 2010). In addition, it also symbolizes light, life, sun, and sincerity (Cooper, 1987/1994).

Making gems by cutting raw gemstones symbolizes the soul being revealed after the impurities are eventually cut off (Fontana, 1993/2002). Stones that overcame the times of hardships are reborn as the most beautiful gems although they were trivial stones, and are loved by everybody, or occupy an important part of a building, where large pillars are erected, as foundation stones that support the building. As such, stones have many possibilities of transformation and mysteries within them. The journey of hardship and pain awakens those possibilities and reveals the form as a new value as a product of transformation. The aspect of development of the human mind is also similar to that of stones in part. People usually wish to meet their self in their lives, want to have a profound inner experience to meet that self, and hope to find their inner identity called individuation through that experience. The notion that the identity of an individual has an a priori existence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each person has his/her star, that is, the other side of heaven representing cosmic dimensions and destiny (Edinger, 1972/2016). To that end, we must be able to listen to our inner voice, make constant efforts, and endure

times of pain in order to know that voice. Only then will we be able to meet ourselves. However, this process is not created by itself, but is created after going through a difficult process through which inner wounds, various complexes, pain, and sadness should be faced.

Therefore, stones symbolize the simplest yet deepest experience, the experience of perpetuity that humans can have when they believe themselves to be immortal and unchanging. That is, although stones suffer pain, the stones made as a result of the pain symbolize eternal and unchanging self. In the past, alchemists sought to convert stones or common metals into gold. In the end, they could not make gold, but they thought they needed a 'philosopher's stone' to accelerate the conversion of elements to that end. Their attempts to obtain gold mean that they wanted to meet their unchanging spiritual self, that is, themselves (Tressider, 1998/2007), and they needed a 'philosopher's stone' as a symbol of transformation and wisdom. In this regard, the alchemist 'Morienus' mentioned as follows (Jung, 1964/2009).

"If you realize this, the love and nobility of this stone will grow in you. You should know that this is the unquestionable truth."

'This' is the process of consciousness-raising from our unconsciousness that we must walk hereafter, and means the journey to individuation while accepting pai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symbolism of stones, which are compared to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is connec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self, which are compared to pearls and diamonds, and how the pain and suffering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y are made are connected to human inner wounds and overcome. In addition, how the symbolism as such is expressed and lead to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in Sandplay therapy scenes will be examined from an analytic psychological perspective.

II. Pearl and Diamond

1. Hymn to pearl

Human beings live as beings imprinted by parents, family, or society without knowing what kind of beings they originally are, and feel pessimistic about themselves for not reaching the life or existence that others and society consider desirable and ideal. Fundamentally, they do not know what kind of beings they are. The hymn to pearl, which tells how the soul awakens and how the source of heaven is shown, metaphorically and vividly depicts what kind of beings human beings were originally. Human beings are analytic psychologically self, Christian religiously children of God, and are God's creatures, that is, God's children in Hinduism. The archetypal human figures as such seem to show well in this story how the soul awakens and remembers the source of heaven. However, as the ego develops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self-consciousness does not recognize the self, the source of ego. Severance of connection with self is a sense of alienation, boredom, a sense of inferiority, a feeling of helplessness, anxiety, and conflicts (Edinger, 1972/2016).

The quotation below symbolically depicts well what kind of beings humans are originally and how humans have forgotten it.

When I was a child and rejoiced in the opulence and splendor of my parents who raised me in my father's kingdom, my parents sent me out with the necessities of travel from the east, my home. ... They took off the robe of glory they had fashioned for me with their love, and the purple cloak they had fashioned to fit me. And they made a promise to me and wrote it in my heart so that I would not forget it. "When you go down to Egypt and bring the pearl, which is wrapped around by a serpent that whimpers in the middle of the sea, spread your robe of glory and cloak on it, and become heirs to the glory together with your younger brother."

I left the east and went down, with two loyal attendants, because the road was dangerous and rough, and I was too young to make the journey. ... I went to Egypt and my attendants left me. I went straight to the serpent and waited at an inn near it to steal the pearl when he fell asleep. ... To the people staying at the inn, I was a stranger. I was dressed like them, so that I would not be seen as a person who would take the pearl thereby being antagonized by the serpent. For some reason, however, they noticed that I was not from the same country as them, they curried favor with me to cunningly fed me liquor and made me know meat taste. I forgot that I was the king's son and served their king. I forgot the pearl, the reason my parents sent me. The heaviness of their feeding caused me to fall into a deep sleep. All of these happened to me, and my parents found it and grieved. ... And my parents sent me a letter with respective signs of both of them. "From the father, the king of kings, from the mother, the goddess of the east, and from your younger brother, our next heir to our son in Egypt, wake up and read our letter, remember that you are the son of a king. Remember your cloak of glory. Put them on to adorn yourself, and become heirs of the kingdom together with your younger brother." It was a messenger-like letter. ... It got up in the form of an eagle, the king of all winged beasts, and flew until it came beside me and shed its light, and entirely became words. Its voice and sound awoke me, and I picked it up, kissed it, broke the seal, and read it. The same content as that written in my heart was written in that letter. I recalled that I was the son of kings and that my free spirit was sent down to Egypt. I recalled

that I had been sent to Egypt to get the pearl, and began to throw a spell on the terrible, whimpering serpent. I told the snake the name of my father, the name of the heir, and the name of my mother, the Queen of the East to put it to sleep. I caught the pearl and returned it to my father. I took off their dirty and impure clothes, put them in their hands, and went on my way to our home, the eastern light.

On my way home, I found the letter that woke me up in front of me, and it shed light before me to guide me as it had awakened me with a voice, relieved my fear with a voice, and led me with love. ... (Thereafter, when he arrived home, his parents sent him a robe of glory and a cloak of glory.) I spread it out to wear it and adorned myself with its colors. Then, I put it on my entire body. After dressing there, I went up to the gate of worship. I bowed my head in greeting and praised the glory of my father who issued the order I followed as with my father who sent it to me and performed what he promised. He accepted me gladly, and I was with him in his kingdom... (pp. 159-161) (Edinger, 1972/2016).

In this story, the ego begins as a child of the king, the heavenly family. This coincides with the original state, that is, identification with self or archetypal spirit. He was sent out of the original paradise because of his mission. This refers to the conscious developmental process to separating himself from his unconscious parents. When he reached the foreign country, he forgets his mission and falls asleep. This situation corresponds to a state of ego-self-alienation and meaninglessness. Each person's mission of life is to live the true shape of him/her as it is. The letter from his parents awakens him from sleep and makes him aware of his mission. The meaning of his life is restor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ego and the superindividual origin of the ego is reforme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re is a mission within humans that is being forgotten like this story, and the sound of the story told by the voice of the mission should be listened. In the hymn of pearl, the voice of the mission is conveyed through the medium termed letter, and the mission that should be realized, completed, and fulfilled through the dream, which is in contact with human unconsciousness, or the work to raise consciousness from unconsciousness such as Sandplay therapy should be conveyed to him as the hymn of pearls says, "There is a letter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content written on my heart" when he listens to the voice. It is important to meet one's self and acknowledge and accept that one, who is the creature of one's archetypal God, to whom the self is connected, is the son of God, and look at oneself in it.

Pearls not only represent the souls of humans who have fallen into the dark world, but also

refer to the 'saved Savior' himself. Saint Ephrem compared the mystery of baptism to a pearl that can never be obtained again. "Divers also bring up pearls from the sea. Jump into the sea (be baptized) and bring out the innocence hidden in the sea, the pearls that adorn the crown of God." Just as pearl seekers must jump naked into the ocean and make his way among sea monsters, so do ascetics enter naked among "people of this world." Gnosis (intuitive perception of God) is "hidden" and difficult to reach. This is because obstacles are everywhere on the road to salvation. Pearls symbolize all of these (Edinger, 1972/2016). Just as the pain of a small sand creates the brilliant light of pearls, this journey to individuation in our lives are hard and difficult, but perhaps this is our mission that we must go through.

2. Pearls as a symbol of receptivity and femininity

Although there are many kinds of gems, given the process through which pearls are created, pearls strengthen the meaning of femininity. Pearls are more valuable gems because they are the result of endurance of pain. To become a pearl, the grain of sand should accept a foreign substance that is not felt like its part for many years. Sufferings are not meaningless but are unavoidable things that give meaning to life. But the result is beautiful because the person becomes to know how precious being he/she is. Femininity does not simply mean feminine appearance, but also means receptivity and relationship (Lee, 2001). Then,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that is, in the process of connecting with the Self, receptivity and relatedness mean not only the acceptance of relationships with the outside or others, but also receptivity for and relatedness with oneself. Accepting one's true figure is true femininity. If one has forgotten what kind of being she was originally, or she has wounds and traumas made in an unconscious state, femininity is to overcome the pain and find her true self. This process may face a regressive desire with fearful and disagreeable feelings. An example of this regressive desire is Jonah in the Bible. He received an inner call symbolized by God, but since he was afraid, lazy, and thought that it was not his business, he went to the bottom of the boat symbolizing regressive motherhood, and fell asleep there, that is, he was still in an unconscious state. But eventually, Jonah who accepted the inner call and comes out toward the shed light is seen. That is, receptivity and relatedness mean acceptance, not resentment or anger about one's deficiencies and traumas.

Women have unique abilities that men can never have. In the process of rebirth consisting of conception of life, childbirth, and nurturing, women spend time of long waiting and endurance, and the experience of new life and love undergone in the process is a mysterious and amazing thing that can be felt and experienced by only women and cannot be imitated by men. It is not necessary to give birth and raise a child to become a 'mother', but becoming a mother is a natural right and instinct of only women who are originally born equipped with them. The similarity between a pearl encased in a shell and an embryo has been emphasized by Chinese scholars. "As a woman carries a fetus in her belly, the shell

carries a pearl. Therefore, the pearl shell is called the 'belly of pearl'." As such, the pearl delivered by the shell after enduring the time of endurance carrying a small grain of sand must be a new life and a mystery. Therefore, the pearl is also expressed as a drop of water that fell when the newborn Aphrodite came out of the water (Mircea, 1952/1998).

Therefore, pearl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edical aspect as a caring role from a long time ago. Pearls were also used in a prescription for bleeding and jaundice, and were used to treat symptoms of possession by evil spirits or madness. Pearls are said to cure eye diseases, have efficacy against poisoning, cure tuberculosis, and guarantee strength and health. Pearls were also said to "drive out poison, devils, decrepitude, and disease." In addition, pearls were also used to treat epilepsy, madness, and depression. Pearls, which had a symbol of power and fertility derived from water, later became tonics and aphrodisiacs. Madness and depression are both diseases caused by the effect of the moon, and they are sensitive to symbols of all of women, water, and eroticism (Mircea, 1952 /1998).

As a story that has matern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pearls, Simcheongjeon, which we know well, can be cited. Simcheong, who was born without a mother as a poorly treated daughter of a blind man and sold to sailors for her father's eyes, is actually the daughter of Xi Wangmu in heaven. She did not know that, but when she accepted her life and fell into Indangsu, she became the queen. That is, this means that she found her true, essential identity. Simcheong was resurrected as a lotus flower, not a pearl, but the lotus flower also has a symbolism similar to that of a pearl. The reason is that lotuses put forth buds in muddy water with low temperatures, and unlike other plants, lotuses generate the heat, which is necessary to bloom, by themselves. As a result, lotuses produce noble and pure flowers that are completely free of mud. The symbolism is quite similar to that of pearls. Simcheong, who was reborn in the lotus flower, is reborn as the wife of a king of a country with a noble and beautiful body instead of a daughter of a blind man, who was treated poorly in the past. Thereafter, she invites blind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her palace, feeds and takes care of them, and meets her blind father, whom she so longed to meet. Thereafter, she becomes to greet a wonderful process of change through which her father opens his eyes. The femininity within pearls and Simcheong makes Simcheong endure her trivial and worthless figure and sacrifice, patience, and pain. Through the difficult journey, Simcheong is newly changed, and the changed being is not the previous trivial figure any more but exhibits mysterious and brilliant light to save life and live in her different new figure.

3. Pearls in the ground: Diamonds as a result of heat and pressure

The word adamantine stone, that is, diamond, is derived from the Greek word *adámas*, which means 'unbreakable'. Diamond (金剛石) means 'very hard mineral' and is also called '鑽石

(Zuànshí)' in Chinese, which means 'piercing mineral'. Diamond is the hardest among materials known to man, is a crystal of more than 99.95% carbon, and is the purest crystal among gems. Its melting temperature is as high as 3,700 degrees and since it is the hardest among minerals, it is not scratched or worn in everyday life unless it collides with each other. Among natural minerals, it has a very beautiful luster, and it sparkles due to its high refractive index for light (Lee, 2010). With the characteristics as such, diamond symbolizes permanence and incorruptibility, and also means the sun and light (Fontana, 1993/2002).

As for the process through which diamond is made, diamond is the result of endurance of heat and pressure in the ground for a long time. Processes that can be likened to the pain of pearl shells take place in the ground. As with pearl shells, which are a symbol of femininity, underground can be said to be unconscious femininity. The result of receiving pressure and heat is crystallization into diamond, which, like pearls, is also a symbol of self. There is a process in which diamond is cut until it becomes a shining gem. Diamond is not completed by itself. Pain, hardships, and a long wait are necessary to obtain the brilliant light. Diamond, which spreads the most abundant light even in the dark, shines even more and is valuable because it has endured the high heat and pressure in the dark ground. Therefore, it has various meanings and is also used as a birthstone. Known as the birthstone of April, diamond means 'immortality' and 'love', and is known as a gem that exhibits beautiful luster as it has the highest refractive index for light among natural stones. Because of this dazzling luster, it has been called 'a piece of a star that has fallen from the sky to the earth' or 'teardrops shed by God' since early times (Lee, 2010).

Until the Renaissance, diamond was considered a symbol of immortality because it is impervious to fire and cannot not be broken with any tool. Diamond became a woman's guardian stone because of the legend that when a mother, who was suffering from thirst in the desert, drank honey containing diamond, she started producing milk again so that she could save a dying child. In fact, even a diamond as small as millet is said to have an effect on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if the gemstone is carried on the body. In addition, it was known that since diamond emits much more energy in its raw state than in its processed state, if a gemstone instead of a processed ring is carried on the body, the person can maintain beautiful skin and fresh youth as well as curative effect.

III. Stones in Sandplay Therapy Cases

Although everybody wants a psychologically healthy life, facing reality sometimes frustrates expectations and causes damage to the ego-self axis with images such as falling, escaping, unhealed wounds, and eternal torture (Edinger, 1972/2016). Therefore,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especially with mother, is very important in childhood, and the ideal and repeated

experience mad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primary caregiver in childhood is an important factor in regulating trust in others, emotional control, and problem-solving ability. (Neumann, 1973). That is, the importance of experiencing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protec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in the early stage continues to be emphasized because it affects the entire life thereafter. The ego-self axis, damaged in inappropriate environments and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in childhood, can be restored through the experience of being sufficiently accepted in adulthood, and one's identity can be reactivated. The experience as such can be achieved through a therapist in psychic counseling. While being sufficiently accepted and experiencing the trust with the primary caregiver, which had not been experienced in childhood, with a new object, the client recovers the ego-self axis, and sometimes the center of meaning and order appears where there was chaos and despair before.

The next case is the Sandplay therapy of a client who experienced the recovery process as such. The client's recovery appeared as a pearl in her sand scene. The client is a woman in her early 30s, and says that her mother has done everything for her since she was young, and she herself has lived obediently, relying on her mother a lot. Although she got married after becoming an adult, she complained of difficulties due to her husband who feels difficulties due to her mother who continues to interfere even after she got married and herself who is confused between her husband and her mother. The client says that she had hard time because she did not know what to do between them with them, and she developed a panic disorder while she was trying to do something for her husband by herself. She says that she eventually gave up her will to do something because of her panic disorder, and instead relied more on her mother when she became anxious. The client became pregnant in the situation as such, and her pregnancy forced her to stop taking her panic disorder medication. Her anxiety became so severe, and she was referred to Sandplay therapy to deal



Figure 1. 15th session sand scene of a woman in her early 30s

with it. The client felt difficulties because she was unable to do anything by herself, and she was concerned that her figure as such w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her own child who would be born thereafter. The client started her Sandplay therapy with the mind that she wanted to get out of her mind as such and live in her true figure.

Fig. 1 is the sand scene the client made during the 15th session while she was undergoing Sandplay therapy. In the sand scene, the client expressed the lake-like sea as a bay where the sea entered the land. She says that it is a sunny, warm, peaceful sea, where her child lies comfortably. She said that now she cannot pay much attention to her child because she is having a hard time due to the panic disorder, and she feels very sorry since her child does not seem to move well probably due to the foregoing. She said that the child who is growing up well nevertheless is so proud and admirable. She brought a large clam carrying a pearl and placed it on the diagonal line of her child in the sand scene, and said that she did so because the pearl was beautiful. Thereafter, she talked about how much hardship, pain and tears it took for the pearl to become so beautiful. While talking, the client said that the pearl brought unintentionally seemed to resemble her too much. She then said, "Can I shine as beautifully as this pearl?" and said that she was consoled and gained strength while she was looking at the pearl. She also shed tears, saying that she was more courageous because she had a child, and that the clam she brought without any thought seemed to give her a lot of meaning wonderfully.

The client brought the pearl-bearing clam with the desire to endure the difficult and hard process of pregnancy and give birth to a healthy child, and seems to unconsciously express her fear about giving birth to a child and raising the child by placing the child on the diagonal line of the clam. The process through which a pearl is made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lient endures her anxiety to give birth to a child through effort are very similar.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grew up while being overprotected are that they do not live as their true selves or tend to perceive the outside world as dangerous, so that they suffer from anxiety. Also, overprotection means being constantly invaded. This client needed to live as an independent being by overcoming her mother's invasion, anxiety in relationships, and resistance to monotonous, uninteresting, and sometimes difficult life as an adult, and finding her original true self. As mentioned earlier, the clam per se symbolizes femininity, but since pearls are a symbol of receptivity and relatedness, the pearl symbolizes the necessity to be connected to one's femininity in order to find one's true self, which the client must accept. The client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process as such along with the process termed pregnancy. Pregnancy and childbirth are similar to the principle of femininity and signify a new birth. This is because the process of giving birth to and raising a child requires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a new being and playing a receptive role as an independent adult, that is, a mother.

The following is a case of Sandplay therapy for a woman in her late 40s. The client said that she lived with her grandmother's house apart from her parents when she was young, and then moved to live with her parents from the time of elementary school. She reports that the house was a strange place, and that since she could not be warm to her younger siblings, she felt like a lonely person alone. She reported that as a result, she tried hard to read others' minds and studied hard to be praised a lot thinking that her parents would like her only when she is doing well at school. However, she said she got stressed a lot because the results were not satisfactory every time. She said that although she is working hard at her current job, but she always feels like something is lacking and she feels too hard because she is constantly doing something.



Figure 2. 10th session sand scene of a woman in her late 40s

Fig. 2 shows the sand scene made by the client in Session 10. While placing a stone on the center, he said that stones of this shape in the past were in the house of a rich family and were objects of envy and dreams to her. The client said that although there are round stones too, she liked these bumpy stones as they felt more free and powerful and thus, she brought them. And then she said, "Since I have brought these stones here, the stones that had been the objects of envy seem to have become mine, and objects to be filled within me." She said that although the stones are ugly shaped, the surroundings seem to shine brightly so that they seem to be powerful.

The stones mentioned by this client can be likened to diamonds. She placed the colorful stones in the form of a mandala, the shape of diamond crystals. Interestingly, there is a large rock on the center. Although these are still in rough shapes, they seem to be shapes of looking for her potential and confidence rather than expressing her true self. They symbolize that she should go through various hardships and adversities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sublimate them to become a beautiful diamond. The client could not take care of her true

self while adjusting herself to the expectations of her parents and society due to the sense of alienation she experienced in her past family relationships. Human beings can't fit themselves to the expectations of others for their lives. Fitting oneself to external standards causes a sense of inferiority in individuals, and eventually, the individuals experience a sense of alienation because they cannot know their true sel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accept the inner self, not the external one. That is, this sand scene symbolizes that this client who has been suffering from a sense of inferiority and a sense of alienation should develop self-confidence, empathy, and the ability to endure loneliness through connection with Self and gain insight into what kind of being she is.

IV.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symbolism of stones and the symbolism of pearls and diamonds among gemstones, which are types of stones, were investigated, and through Sandplay therapy cases, how clients accept their pain and difficultness, how they arrange them in their inner side, and how to find their self were investigated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A stone per se is a useless and trivial being, but the appearance of it changed after enduring the high heat, pressure, and hours of pain applied to it was the appearance of a pure crystal and a brilliantly shining pearl and diamond, and the stone was reborn as a being, which is no longer trivial but is regarded to be precious and valuable by everybody.

In the Sandplay therapy cases, the first client expressed the figure of a pearl in a clam and her child at the opposite pole in the sand scene, although there were still many remaining difficult journeys to go. This made her realize that although there are many difficulties she has to deal with now, the difficulties and hardships are not trivial to her, but are the process to make precious and valuable pearls, and show overcoming the current difficulties. The second client was obsessed with the idea that she was a worthless and trivial being like an angular stone thus far and struggled with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among people, but she accepted the angular stone per se as hers to realize that it could shine just by itself thereby finding the peace in her inner side.

The way to make human beings healthy is finding the true individuality of persons who have been completely alienated by their ego by unconditionally adapting to the demands of society thus far, finding the self, that is, self-realization. When we turn away from the unconscious messages within ourselves and live while adapting to the demands of society, we become to live while completely dealing with the pain, suffering, and difficultness within them. It becomes a wound to hide our figures in ourselves and we become to have only the shadow of a sense of inferiority complex, wear a mask of not knowing what is true and what is the

true figure, lose the direction of life, and wanders around. Perhaps this figure per se is our trauma and the pain of life. The process of self-awareness, in which we recall the words “You are the king’s son”, which is the message in our unconscious, and recognize and realize it, is a precious process that we must go through because it is the process to be born anew.

It was said that self-realization or individuation, which is the process of self-awareness, does not make people comfortable, but gives them the strength to endure pain and makes them find meaning in pain (Lee, 2002).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as such is a conscious conversation with the Self, which is the inner center, and begins when the individual is hurt and suffers from it. In general, when facing the unconscious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to find the true self, the individual becomes to feel tremendous pain and hardship (Jang, 2017). In addition, the experience of individuation is possible when the integration of opposite poles is achieved through mental conflicts, or when suppressed emotions or consciousness are expressed and accepted, and it can bring about a change in attitude because it expresses symbols (Lee, 2005). Therefore, individuation is progressed throughout life, and it can be seen that personality changes through unique and special self-experiences by individual (Jung, 1999/2004). The meaning found in this process will be a journey of a meaningful healing process leading to individuation as a healthy individual.

References

- Campbell, M. (1996). *The raven's retur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trauma on individuals and culture*. Chiron Publications, 1993,(708) 258-7551.
- Cooper, J. C. (1994).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 Hudson. (Y-K, LEE, Trans). Kachigeulb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 Edinger, E. (2016). *Ego and archetype: Individuation and the religious function of the psyche*. Penguin Books. (M-K, Jang, Trans).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 Fontana, D. (2002). *(The)Secret language of symbols: A visual key to symbols and their me*. Chronicle Books. (S-J, Chol, Trans). Munhackdongne.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Jang, M-K (2017). *Analytical Psychological Sandplay Therapy*. Hakjisa.
- Jung, C. G. (2004). *Personality and Transition*. (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chnology, Trans). Sol Publishing Poems.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Jung, C. G. (2009). *Man and his symbols*. (Y-K, LEE, Trans). Open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4)
- Kim, S-C (n.d). Rocks(石).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6109>
- Korean Bible Society (1961). *New Korean Revised Version, NKRV*. Agape. Acts 4:11.
- Lee, B-Y (2001). *Anima and Animus: The woman within man, the man within woman*.

- Hanglisa.
- Lee, B-Y (2002). *Self and Self-actualization: One Mind, the toward Wholeness*. Hanglisa.
- Lee, C-J (2010). *Mineral · Rock*.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 Lee, K-H (2005). *The study on development relation of self-differentiation and identity formation in the women of middle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Women, Seoul, Korea.
- Matthews, B. (Ed). (1993). *The Herder Dictionary of Symbols: Symbols from Art, Archaeology, Mythology, Literature, and Religion Dictionary of symbolism*. Chiron Publications.
- Mircea E (1998). *Images and Symbols: Poetic on the System of Sorcery and Religious Symbols*. Editions Gallimard. (J-S, LEE, Trans.). Kachigeulb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52)
- Neumann, E. (1973). *The Child*. Shambhala.
- Tressider, J. (2007). *Symbols and their meanings*. The House of Books. (B-H, Kim, Trans). Dosol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Received : January 31, 2023

Revised : March 17, 2023

Accepted : April 22, 2023